

여성의 보이지 않는 강인함 ‘억척’에 대한 심리학적 탐구*

하 혜 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황 매 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국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보이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강인함에 있다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 공유하고자 한다. 이에 이 연구를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일구어 온 한국 여성들의 보이지 않는 내적인 힘, 마음의 아름다움인 억척스러움에 대해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존재, 의존하는 존재 등의 소극적 접근이 주를 이루어 왔다. 여성은 독립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 정서를 가진 강인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무시되어 왔다. 최근 심리학에서는 마음의 아름다움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즉, 인간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고민을 멈추고 긍정적 성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그동안 억척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 견지에서 벗어나, 내적 아름다움, 아름다움의 상대성, 억척이라는 심리적 특성, 우리나라 여성의 아름다움 억척, 행복을 부르는 억척스러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 억척이 새롭게 조명되기를 바란다.

■ 주제어 ■ 억척, 한국 여성,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 회복력, 긍정 심리학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주저자, maumaum + @knou.ac.kr

*** 교신저자, maehayng@ginue.ac.kr

1 들어가며

“옛날 옛날에…….”

어릴 적 나는 이 다섯 글자가 시작되면 눈이 초롱초롱해지면 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하는 기대감에 사로잡혔다. 어디로 가게 될까? 공포일까, 슬픔일까, 아니면 기쁨과 행복일까? 이야기하는 할머니 앞으로 바짝 더 다가가며 귀를 기울였다. 무슨 이야기든 좋았다. 이야기는 그렇게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의 내용은 이제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 버렸지만, 그 경험은 친근함과 즐거움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나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주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한 남자의 부인으로서 살아온 고통의 세월들을 담고 있는 에피소드들이었다. 그 이야기들로 인해 나는 그분들을 보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삶에 스며있는 슬픔과 기쁨, 또한 그것을 품고 살아내는 인내와 그 결실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¹⁾. 그 때는 몰랐던 것 같다. 그들이 부드럽고 나약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여린 체구 안에 단단한 심지처럼 심겨져 있는 그 억척스러움을.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여성을 아름답게 하는가? 나는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가 여성이 부드럽고 나약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네 할머니와 어머니들의 삶의 이야기에서 발견한 것은 그들

1) 『상담자가 건네는 말(하혜숙, 에피스테메)』의 145쪽 ‘새로운 이야기쓰기’에서 인용함.

이 아름다운 신부의 드레스와 함께 전투화를 신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아름다움 안에는 강함이 있고, 그 강함 안에는 아름다움이 스며있다.

안과 밖, 왼쪽과 오른쪽, 위와 아래, 남과 여, 어른과 아이, 빨강과 파랑, 여름과 겨울... 우리는 늘 이렇게 대별되는 것들 가운데 있다. 이들 중, 어느 것을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나름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어느 것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는 쉽게 답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둘 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별되는 것들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다른 쪽의 것을 향해 고개를 돌림으로써 균형을 찾고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발현된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아름다움에 몰두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이는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사이에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아름다움이 투영되어, 보이는 아름다움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일, 몸과 마음이 연결됨으로써 생명력을 가진 아름다움이 빛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 여성들의 외적인 아름다움의 이면에 스며있는 내적 아름다움인 역척스러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 의존하는 존재, 나약한 존재,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존재 등의 소극적 접근이 주를 이루어 왔다(Fischer, 2006). 역사적으로도 여성에 대한 연

구에서 여성은 연약하고 병약하다는 고정관념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Moloney, 1995). 한편으로 여성의 문제와 관련한 연구들에서도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나 장애에 관한 이론들은 사실과 관련된 주제를 강조하면서 심리적·신체적인 제약을 지닌 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Goodwin & Fiske, 2001, Wright, 1983). 여성은 감성적이고 섬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독립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 정서를 가진 강인한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무시되어 왔다(McElmurry & Librizzi, 1996). 따라서 여성의 보이지 않는 내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모든 여성은 내적인 강인함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강인함은 실제적인 삶을 통해 개발되기 때문에 여성을 대상으로 강인함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이경순, 1996).

여성들은 그들의 삶의 경험에 따라 강인함의 형태를 인식하기 시작한다(Miller, 1996). 다만, ‘강인함’이라는 용어만으로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삶의 경험 속에 녹아있는 다층적인 정서를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주변의 여성들을 보며 억척스러움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었다. 인생의 산꼭대기 시절뿐만 아니라 산골짜기의 시절도 견뎌낸 우리 여성들의 숨어있는 마음의 힘, 억척이 새롭게 조명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동안 억척스러움을 경멸스러운 어투로 언급해왔다. 하지만, 이 억척스러움이야말로 지금의 빛나는 한국을 이끈 진정한 힘이 아닐까,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또 다른 힘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의 억척녀들은 전쟁의 폐허를 이겨냈고 일

과 육아와 공부를 함께 하며 IMF를 뚫고 나왔고, 남성과 여성을 갈라놓는 고정관념에도 굴하지 않고 일하고 공부하고 꿈꾸며 삶을 살아냈다. 거친 바닷바람을 견디며 가정을 일구어 온 부산의 자갈치 아지매²⁾가 그렇고, 전쟁의 잔인한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위안부 할머니들³⁾이 그러하다.

우리 주변에는 그야말로 억척스럽게 삶을 살아내는 여성들이 참으로 많다. 마치 우리 국민의 삶 속에 스며있는 정서를 ‘한(恨)’이라는 단어가 아니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 여성의 삶의 경험에 녹아있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긍정적 역량 역시 ‘억척스럽다’는 말 이외에 어떤 심리학적 용어로도 표현할 길이 없다.

이 글을 통해, 소녀들과 여성들이 고개를 숙여 마음의 아름다움을 향해 눈길을 보내고 내 안에 있는 억척스러움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여성들의 아름다운 힘이 앞으로의 한국을 더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2 내적 아름다움(inner beauty)

1) 아름다움의 탐구

“당신은 아름답고 싶나요?”라는 질문에 누구나 “네, 당연히

2) 『부산의 억척 엄마. 자갈치 아지매』(여성우리, 62, 40-43)에 부산 여성들의 억척스러움이 소개됨.

3) KNOU 논총에 소개된 『여성의 내적 아름다움, 억척에 대하여-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을 중심으로』를 참고함.

죠”라고 대답할 것이고, “그 방법을 알려드릴까요?”라는 질문에는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와 같은 욕망과 궁금증은 일상생활을 넘어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 되어 온지 오래다. 인간이 왜 이렇게 아름답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가설과 설명은 다양하지만, 모두 그러한 욕망이 타고난 인간의 본성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는 한 목소리를 낸다. 그만큼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하고 적응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아름다운 삶을 위해 나는 지금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을까?, 학자들은 아름다움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아름다움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가져보자.

아름다움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을 미학이라고 부른다. 미학을 소개하는 개론서⁴⁾에서는 “미(美)라는 경험이든 사실이든 그 현상을 정리하는 학문으로서, 미라고 불리는 경험, 미라고 불리는 현상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간의 삶은 그 출발에서부터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학문적 탐구의 출발부터 아름다움에 대한 탐구에 관심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처음으로 미학이라는 이름을 붙인 바움가르텐(Alexander Gottlib Baumgarten, 1714~1762)을 출발로 헤겔의 미학, 칸트의 미학이라고 명명되는 보다 구체적인 담론이 가능해졌다.

4) 『미학개론: 이 땅 최초의 미학강좌』(우에노 나오테루 지음, 김문환 번역·해제, 2013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의 38쪽에서 인용함. 미학에 관한 내용은 이 문헌을 참고한 것임.

다양한 미학적 담론 가운데 흥미로운 점은 바로 심리학의 접목이다. 아름다움이란 개인과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대상을 지각하는 개인이 어떻게 경험(또는 체험)하는가와 관련되는 미적 태도에 주목하는 것이다. 미적 대상이 객관적인 측면이라면, 미적 태도는 주관적인 측면에 해당한다. 많은 예술가들은 자신이 창작한 작품에 대해 관객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오롯이 관객의 몫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작품은 이런 미적 요소를 담고 있으니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내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예술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훌륭한 예술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2) 아름다움의 상대성

명화 수태고지(annunciation, 受胎告知)는 지난 몇 백년간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의 최악의 실수작으로 알려져 있었다. 왜냐하면 건물과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배경이 원근법에 어긋나 있고 마리아에게 잉태를 알리는 가브리엘 천사가 비대해 보이고 어둡다. 또 마리아의 오른팔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탁자와 마리아의 위치가 너무 멀어서 어색해 보인다. 이 그림을 공중에서 도해해보면 마리아는 아주 기형적인 사람으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그림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혹자는 이렇게 엉터리 같은 그림을 다빈치가 그렸을 리가 없다고 하면서 절대 다빈치의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편에서는 다빈치의 그림이 맞긴 하지만 다빈치가 워낙 초기에 그린 것이어서 아직 그림을 배우기 전이라 다소

어색해 보일 뿐이라며 맞서기도 했다. 한편, 이 그림이 걸려있는 곳은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인데, 정면에서 보았을 때 이 그림은 기본적인 회화 구도상 맞지 않는 엉터리 그림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그림을 왼쪽 상단에 놓고 보면 완전히 달라진다. 원래 이 그림은 성 발토르멜 수도원 식당에 걸려있다가 1867년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된 것인데, 그림을 걸어둘 수도원 식당이 좁아서 왼쪽 상단의 벽에 걸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색한 졸작이지만, 그림이 걸려있던 그대로 왼쪽 상단에 놓고 45도 아래쪽에서 바라보면 기존의 불일치들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수태고지 장면을 발견할 수 있다⁵⁾.

다빈치의 수태고지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림을 어디에서 바라보는가의 시각적 차이가 한 그림을 걸작에서 졸작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점은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바뀔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즉, 아름다움이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 세계 속에서 무엇과 비교되는가에 따른 상대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수많은 아름다움이 우리 주위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관점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한 아름다운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보아야 할 때이다.

5) 다빈치의 수태고지에 대한 내용은 방송대 하혜숙 교수의 『청소년인성교육』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함.

3) 내적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나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우리나라에서 70년대에 유행했던 「마음이 고와야지」라는 노래 가사의 일부이다. 이토록 강력하게 마음의 아름다움을 강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내적 아름다움의 추구를 표방하고 있다. 인간은 모두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지만,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여성은 스스로 아름다움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워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도 적지 않게 받는다. 그래서 사회가 요구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시대마다 사회마다 다르다는 것은 여성을 힘들게 하기도 한다.

아름다움을 나누는 기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적 아름다움과 내적 아름다움일 것이다. 우리는 눈으로 확인되는 외적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inner beauty)까지 갖고 싶어 한다. 외모로 지칭되는 겉모양이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면에도 아름다움을 담고 있어야 비로소 아름다움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나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은 여자를 원한다. 즉, 외적 아름다움과 내적 아름다움을 겸비한 여성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때그때 조금씩은 다른 메시지를 여성들에게 보내고 있다. 마치 진 자운동을 하듯이 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기울었

다가,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여겨지면 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기우는 식으로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대부분 경제발전을 급속하게 하는 시기에는 소비가 많아지면서 외적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많아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생기면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적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의 힘이 진자를 이끈다. 지금 우리는 마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70년대 「마음이 고와야지」를 히트시킨 것처럼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경제 강국으로 등극하면서 외적 아름다움의 추구의 극한에 달한 듯하다. 이제 내적 아름다움의 추구로 진자로 방향을 바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본다.

3 역척이라는 심리적 특성의 새로운 발견

1) “마음이 아름답다”란?

외적 아름다움을 넘어 내적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라면 우리는 어떤 내적 아름다움을 추구할 것인가? 외적 아름다움이 외모라면 내적 아름다움은 마음일 것이다. 마음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 의미 속에 여러 가지를 내포한다. 착하다, 배려한다, 따뜻하다 등의 단어가 먼저 떠오르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우리 문화를 오랫동안 지배해 온 유교적 전통에 따르면, 인의예지(仁義禮智), 즉, 착하고 정의롭고 예의바르고 지혜로운 마음이 바로 내적 아름다움을 대표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 또한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마음이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관점은 근대 이후 많은 변화를 했다. 예를 들면, 여성에게 특히 강조되어 오던 순종과 복종을 실천하는 여성은 더 이상 아름다운 여성이 아닌, 소극적이고 구시대적이고 어리석은 여성으로 전락했다. 대신 알파걸⁶⁾ 또는 슈퍼우먼⁷⁾으로 명명되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고 남성과 당당히 경쟁하면서 실력을 키워가는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으로 간주된다.

또한, 최근 심리학에서는 마음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사람은 긍정적 성품과 부정적 성품을 함께 지니지만, 오랫동안 심리학은 인간의 부정적 측면만 봐왔다. 90년대까지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부정적 측면을 다룬 논문이 긍정적 측면을 다룬 논문보다 약 17배나 많았다.⁸⁾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렇다. 불을 켜는 것이다. 어두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제 심리학은 긍정적인 성품을 통해 어두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이고, 그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Martin E. P. Seligman, 1942~)⁹⁾은 “심리학은 인간의 약점과 장애에 대한 학문만이 아니라 인간의 강점과 덕성에 대한 학문이기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긍정심리학이 지금까지 밝혀낸 긍정적 성품은 지혜(wisdom), 인간

6) 남성보다 능력이 뛰어난 엘리트 소녀, 즉 첫째가는 여성을 가리켜 이르는 말(출처: 『우리말 다듬기 자료집』, 국립국어원, 2007년)

7) 집안일과 바깥일을 모두 잘하는 여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출처: 네이버사전)

8) 「Who is happy?」, D. G. Myers & E. Diener, Psychological Science, 1995년

9)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Free Press.

애(humanity), 용기(courage), 절제(temperance), 정의(justice), 초월(transcendence) 등 6개의 핵심 덕목과 24개의 강점¹⁰⁾으로 구성된다. 어두움에서 눈을 떴고 빛을 비추어 보니,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강점들이 숨어 있었다.

2) 우리나라 여성의 아름다움, 억척

최근 실시된 한 연구 결과¹¹⁾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여성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적 성취를 추구하며 성장하도록 격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결혼과 함께 가정에 머무르며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하도록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스스로 성공을 이루는 여성과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여성을 동시에 원하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운 여성은 누구일까? 억척녀는 바로 이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원하는 아름다운 여성에 가장 가깝다.

주변에서 어떤 이를 일컬어 억척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체로 또순이 또는 아줌마 같은 부정적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다. 억척스러운 이라는 형용사와 유사한 표현 가운데에는 끈덕진, 불굴의와 같은 단어 못지않게 모진, 극성스러운과 같은 부정적 단어들도 존재한다. 특히 억척스러운을 영어로 번역한 단어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tough인

10) 피터슨과 셀리그먼은 6개의 핵심덕목과 24개의 강점으로 구성된 성격적 강점과 덕성에 대한 VIA 분류체계(Values-in Action Classification of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를 구성하였다.

11) 「한국 여대생의 문화적 성향 잠재계층 분류와 진로관련변인과의 관계」, 김양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년

데, 이 단어는 사람에게 쓰였을 경우 강하고(strong), 의지가 굳으며(determined), 어려움이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can tolerate difficulty or suffering)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거칠고(rough), 폭력적인(violent) 이라는 부정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드센 여자들을 부를 때 억척스럽다고 한다. 아무래도 억척스럽다는 것은 부정적인 어투이다.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경멸과 거리낌이 묻어 있다. 더구나 억척스럽다는 말은 주로 여성에게 붙여진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억척스러운 여자라고 할 때 상투적인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고정관념인 것이다. 그런데 이 억척스러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떨까? 마치 다빈치의 걸작이 몇 백년간 걸작으로 오해받았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또한, 우리가 억척스러운 그녀들을 제대로 된 관점에서 바라봐주지 못해서 그녀들의 강하고 신비하기까지 한 아름다움을 볼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억척이 이루어낸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결과물을 보면 왜 억척이 마음의 아름다움의 핵심인지 알 수 있다. 한동안 인터넷 상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발레리나 강수진의 굽고 일그러진 발 사진을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다. 무대 위에서는 뛰어난 기술로 무용예술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표현해 냈던 강수진을 아름다운 얼굴과 춤동작으로만 기억하던 사람들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숨겨진 발 사진을 본 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한편, 누구도 그 발이 흉하거나 추하다고 손가락질하지 못했다. 그 사진에는 강수진이 억척스러움으로 일

구어낸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온 국민이 사랑해 마지않는 국민요정 피겨스케이터 김연아의 남다른 약점에 대한 인터뷰 방송이나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김연아는 오랜 선수생활 중 크고 작은 다리부상을 겪어, 발목이 휘고 여기저기 상처와 흉터가 남아 치마를 입을 때마다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 20대 꽃다운 나이에 또래들처럼 미니스커트나 핫팬츠로 몸매를 뽐내고 싶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빙판 위에서 일구어 냈던 그 수많은 영광과 메달의 대가는 고된 연습과 훈련 끝에 남은 상처투성이 다리였던 것이다. 우리가 발레리나 강수진이나 스케이터 김연아의 공연이나 시합을 볼 때 떠올리는 이미지만을 ‘아름다움’과 연결하기보다, 한 발짝 들어가 그들이 그러한 미를 구현하기 위해 견뎌야 했던 시간들에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도전과 강함, 즉 억척스러움에서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행복을 부르는 억척스러움

1) 내부 지향적 삶과 행복

인간의 행복만큼 오랫동안 활발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주제는 없을 것이다.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 행복할 수 없다면 성공의 의미도 퇴색되어 버리고 만다. 7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하버드대의 종단연구¹²⁾의 궁극적 목적도 인

12) Vaillant, G. E.(2015). Triumphs of experience :the men of the Harvard Grant Study. Belknap Press.

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고, 달라이라마와 같은 현자들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는 바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학교에서 행복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행복연구센터를 2010년도에 설립해, 행복을 연구하고 관련 문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들에서 들을 수 있는 하나의 목소리는 내부 지향적 삶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외적 가치의 가장 대표적 예는 돈이다. 외적인 가치를 추구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해질 수 있지만, 외적 가치만 추구해서는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하기는 어려워진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과 현자들은 내적 가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즉,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할 때의 행복이란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고, 특히 외모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집착하는 것은 진정한 삶의 만족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이를 통해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해 온 학자인 라이언(R. M. Ryan)과 데시(E. Deci)¹³⁾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내적인 목표(intrinsic goal)와 외적인 목표(extrinsic goal)로 구분하였다. 내적인 목표는 건강, 개인적 성장, 소속, 사회적 공헌 등과 관련되어 있고, 외적인 목표는 명예, 경제적 성공, 외모 등을 말한다. 내적 목표는 목표 그 자체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 욕구

13) Ryan, R. M. & Deci, E. L. (Eds.).(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를 만족시킴으로써 행복에 도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반면 외적 목표는 외부세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달성의 기준이 외부의 비교와 다른 사람의 인정, 평판 등에 의해 좌우된다. 목표를 달성했는가 즉 성공했는가의 여부가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목표달성의 만족도가 내적 목표에 비해 떨어지게 된다.

2) 행복으로 가는 열쇠, 역척

우리에게 필요한 외적 가치와 내적 가치를 모두 성취해 온전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다름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인 역척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어려움과 장벽 앞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게 하는 역척의 특성은 성공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된다. 누군가에게는 금메달이, 누군가에게는 서민 갑부가, 누군가에게는 잘 키운 아들과 딸이, 또 누군가에게는 병마와 싸워 이긴 건강한 몸이 그 열매이다. 신경과학자인 다니엘 레비틴¹⁴⁾(Daniel Levitin, 1957~)은 어느 분야에서든 세계 수준의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의 연습(하루 3시간씩 하루도 빠짐없이 10년 정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고, 그 이후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되면서 1만 시간의 법칙으로 명명되고 있다.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어느 분야에서든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노력을 이끄는 인성적 자질이 역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역척스러움이 있어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

14) Levitin, D.(2014). The Organized Mind Thinking Straight in the Age of Information Overload. Dutton Books.

루고 자신이 원하는 성공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억척은 외적 성공에만 머물게 하는 것은 아닐지, 그래서 진정한 행복에는 도달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억척이 내면 지향적 삶까지 가져다 줄 수 있을 가능성은 앞서 살펴본 데시와 라이언의 자기결정성 이론¹⁵⁾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삶에 만족한다 또는 행복하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가진 욕구가 충족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인간은 다른 유기체와 달리 심리적 욕구가 더 크게 만족감을 좌우한다고 한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인간이 꼭 채워야 할 심리적 욕구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꼽고 있다. 자율성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무엇이든 하기 원하는 것을, 유능감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을, 관계성은 누군가와 정서적 유대 맺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억척은 이러한 세 가지 욕구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내적인 만족 즉 행복으로 이끌어 주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첫째, 억척스러운 여성들은 누가 시켜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한다. 부모의 강요, 사회적 압력, 자신의 체면 때문에 억지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연습을 하는 사람에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억척스러움을 찾을 수는 없다. 즉, 억척스러움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해야 할 것을 찾게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술선수범하게 되며, 그것이 자율성이라는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더 열심히 하게 하

15) 데시(Edward L. Deci)와 라이언(Richard M. Ryan)의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은 인간의 동기와 행동을 설명하는 심리학 이론으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 이론은 특히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자율적으로 조절하고, 내적인 성장과 만족을 추구하려는 본질적인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는 선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

둘째, 억척스러운 여성들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 계속 자신의 실력과 기술을 신장시켜 나간다.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실력과 기술의 신장이 더 촉진된다. 어떤 일을 하든지 ‘안 되면 어쩌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안 될 거야’라는 태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내가 왜 못 해,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잘 안되는 거야, 이번엔 잘될 거야’ 등의 태도가 발휘된다. 이러한 자신감과 긍정적 마음가짐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투지는 억척녀들의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이 과정에서 맛보는 유능감은 노력의 과정을 고통이 아닌 즐거움으로 만들어 준다.

마지막으로 억척녀들은 자신만을 위해 매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직장 동료들을 위해,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때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이타심은 그 자체만으로도 관계성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뿐만 아니라 억척녀들의 보살핌을 받는 많은 사람들과의 끈끈한 정서적 유대는 더욱 관계성의 욕구를 채워주는 행복의 원천이 된다.

5 정리하며

아름다움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관심사이자 사회적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아름다워지고 싶어 한다. 아름다움은 일상의 관심사를 넘어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 되어 온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으며 아름다움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하며 아름다움을 쫓아가고 있다. 어쩌면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는 끝없이 진행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억척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아름다움의 지평을 넓힐 뿐만 아니라, 억척이라는 한국 여성 고유의 긍정적 성품을 새롭게 조명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여성의 아름다움은 통합적이고 다층적이며 포괄적이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현대 우리 사회는 여성의 아름다움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은 아름다움까지 포함된 것이라는 메시지가 절실하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소녀들에게 일그러진 자아상을 딛고 일어나 진정한 아름다움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논문 투 고 일: 2024.01.07

□ 심 사 완 료 일: 2025.02.10

□ 계 재 확 정 일: 2025.02.10

참고문헌

- 김문환(편). (2013). 미학개론: 이 땅 최초의 미학강좌,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양희 (2013). 한국 여대생의 문화적 성향 잠재계층 분류와 진로 관련변인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정태(역). (2009). 아웃라이어(outliers). 김영사.
- 배숙자 (2016). 박완서 소설의 여성의식과 형상화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순 (1996). 노인 여성의 내적 강인함에 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5(1), 5-12.
- 유승훈 (2019). 부산의 억척 엄마. 자갈치 아지매. 여성우리, 62, 40-43.
- 하혜숙 (2020). 상담자가 건네는 말. 에피스테메.
- 하혜숙, 민병갑 (2021). 여성의 내적 아름다움 ‘억척’에 대하여-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을 중심으로. KNOU논총, 71, 123-142.
- 하혜숙, 황매향, 여태철, 강지현 (2018). 청소년인성교육. KNOUPRESS.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Y.; Plenum.
- Fischer, A. R. (2006). Women's benevolent sexism as reaction to hostilit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0, 410-416.
- Goodwin, S. A., & Fiske, S. T. (2001). Power and gender: The double-edged sword of ambivalence. In R. K. Unger (ED).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women and gender* (pp. 358-366). Hoboken, NJ, US: John Wiley & Sons Inc.
- McElmurry, B., & Librizzi, S. (1996). The health of older women.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21(1), 161-171.

- Miller, J. (1996). *Toward a new psychology of woman*(2nd ed.). Boston, MA: Bacon Press.
- Moloney, M. F. (1995). A heideggerian hermeneutical analysis of older women's stories of being strong.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7(2), 104-109.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1), 10-19.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Free Press.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Free Press.
- Seligman, M. E. P. (1999). The president's address. *American Psychologist*, 54, 559-562.
- Wright, M. O., Crawford, E., & Sebastian, K. (2007). Positive resolution of childhood sexual abuse experiences: The role of coping, benefit-finding and meaning-making. *Journal of Family Violence* 22(7), 597-608.

ABSTRACT

An Psychological Exploratory Study on the Invisible Strength of Women, ‘Ukcuk’

Ha, Hyesuk

Dept. of Youth Education, Welfare & Counseling
KNOU

Hwang, Maehyang

Dept. of Education
GNU

This study originates from a contemplation on the true beauty of Korean wome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are the perspective that true beauty is not merely about external appearance but also about the unseen inner strength of the mind. Accordingly, this research aims to shed new light on the Ukcuk—an inner strength and beauty—of Korean women who have contributed to shaping society. Traditionally, women have often been perceived through passive perspectives, such as being in need of protection, socially disadvantaged, or dependent. However, despite their independence, proactiveness, and positive emotional strength, these aspects have been largely overlooked in studies on women. Recently, psychology has begun to highlight the concept of inner beauty, shifting its focus from the study of human negativity to positive traits. In this context, this paper seeks to move beyond the traditionally negative perceptions of Ukcuk and explore the

relativity of beauty,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Ukcuk, and the connection between Ukcuk and the beauty of Korean women. Furthermore, it examines how resilience contributes to happiness. Through this study, it is hoped that Ukcuk, which embodies the true beauty of Korean women, will be newly recognized and appreciated.

| **Key Words** | Ukcuk, Korean women, resilience, true beauty in women, positive psychology